



내수 부진에도
실적 '好好'
K푸드, 글로벌 '날개'
너



Life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
해외사업 호조
L2



'치약, 세제 아닌 약' 신념으로 韓 넘어 세계시장 문 두드린다

FINEFRA

(주)제우MEDICAL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충국 제우메디컬 대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기업’ 제우메디컬이 2012년 당시 파인프라(FINEFRA)치약을 처음 내놓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했다.

1000원~2000원대 가격이 널려 있는 국내 치약시장에 10배 가량 비싼 개당(100그램 기준) 1만5900원 짜리를 선보였으니 어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미쳤다고 평가했던 그 치약이 사방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파인프라 자사몰 후기에는 ‘11년째...’, ‘2016년부터 사용중’, ‘8년째 챙겨두고 쓰는 파인프라치약!’ 등 오래쓰고 있는 충성 고객들의 스토리가 즐비하다.

11년째 파인프라 치약을 쓰고 있다는 한 고객은 “40년간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던 아버님도 지금은 파인프라치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파인프라치약은 ‘판치마켓’에서도 실시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참 감사하게도 소비자들께서 회사 홈페이지에 6000개가 넘는 후기를 작성해주셨다. 자사몰 기준으로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84~86%에 이른다. 제품을 처음 출시하기 전에 마비스, 엘맥스, 덴티스테, 아조나, 투스프로 등 일본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치약들의 가격,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렇게해서 1만5900원이라는 판매 가격을 책정했다. 효과는 우리 제품이 외산 치약보다 더 좋다고 자부한다. (미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제우메디컬 본사에서 만난 김충국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가 창업한 제우메디컬은 주변의 싸늘(?)했던 시선을 무색하게 하며 제품 출시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비싼 치약’이 한국시장에서 먹혀들어간 것이다.

제우메디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약소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그런데 구강질환은 OECD 국가가 중 가장 많다.

김 대표는 ‘치약은 세제가 아니라 약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파인프라치약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 입안에는



제우메디컬의 파인프라치약.

파인프라 치약 재구매율 84%~86% 달해
출시 첫해부터 흑자 기록, 지금까지 유지
일 유학 중 급성치주염 겪고 기업가로 변신
천연 유래 원료 사용... 치약 조성물 2건 특허
코로나19에 무산된 日·美·中·EU 공략 재개
키즈치약, 샴푸, 트리트먼트 등 라인업 확장

700여 종에 달하는 균 2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퐁치’라고도 불리는 치주염은 입안의 균때문에 생긴다. 나쁜 균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치약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일본 유학시절 급성치주염을 심하게 앓았다. 입에 양파도 물어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잇몸을 찢어 피가 나게도 해봤다. 그만큼 잇몸 질환이 고통스러웠다. ‘고미술’을 공부하러 현해탄을 건넌 그는 곧바로 치약을 만드는 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다.

파인프라치약은 천연계면활성제와 천연에서 유래하는 원료를 사용한다. 8가지 유해성분은 아예 쓰지 않는다. 치약 조성물에 관해서 2건의 특허도 받았다. 파인프라치약으로 양치시 구강 전체에 형성되는 치면막은 세균 발생과 번식을 막는다. 입냄새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나온 검사 결과에 따르면 파인프라치약은 입안의 대장균, 진지발리스균, 뮤탄스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을 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염과 충치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균은 자사의 치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경쟁상대가 없는 고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는 그렇게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충치는 20대 이전에, 치주염은 30~40대 이후에 많이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는 24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제품으로) 이론적으론 하루에 한번만 양치하면 된다(웃음). 그래도 건강을 위해 치약을 콩알 크기로 찢서 하루 세번 양치할 것을 권장한다. 잇몸이 상한 후에도 효과가 있지만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후 쓰셔도 좋다.”

제우메디컬은 2017년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해외시장 공략도 시작했다. 이후 유럽연합(EU), 중국, 미국에는 총판 계약을 체결해 시장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하려는 수출길을 막아섰다.

김 대표는 “법인까지 세웠던 일본은 매물비용이 무척 컸다. 미국, 중국 등도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고전했다. 이제 해외시장을 다시 공략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이 우선 대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미국 농무부 인증마크,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도 획득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도 받았다.

김 대표는 치약에 이어 키즈 치약, 샴푸, 트리트먼트, 비누, 칫솔 등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장했다. 이들 제품 모두 치약과 같이 대부분 천연물질을 원료로 썼다. 그 사이 관련 특허는 6건으로 늘었다.

“고기능성 치약으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다면 나머지 품목도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단헛던 해외시장 문도 다시 열어 볼 계획이다. 일본서 고전한 매물비용 등을 청산한 뒤에는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것이다. 국내 바이오시장에서 특허와 기술을 갖고 꾸준히 흑자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 치약 등을 통해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올해 설 연휴 궁궐·왕릉에 60만명 방문... 지난 해보다 6만명 늘어 /사진 뉴시스
▲책으로 외로움 극복하자... 서울시,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시작

▲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오타니 돈 빼돌린 전 통역사, 징역 4년 9개월형 선고 받아

▲황희찬의 올버햄튼, 英 FA컵 16강서 본머스와 대결
▲‘투트쿠 복귀’ 흥국생명, 페퍼 완파하고 7연승 행진... KB손보 5연승